

가족처럼 친밀했던 동료들

홍원탁(洪元卓)

〈1971~77 수석연구원 · 서울대학교 교수〉

나는 1962년 미국에 건너가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위스콘신 밀워키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있다가 9년 만에 수석연구원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1970년대 초까지도 미국에 들어간 사람이 한국을 다녀간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려웠다. 비행기 직항편도 없고, 항공료도 비싸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한번 미국에 들어가면 아주 나올 때까지 한국에 다녀온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을 때였다. 그래서 나는 9년 동안 집에 안부편지만 하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나는 미혼이고 단신으로 홀가분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사람으로부터 김만제 원장이 한국인 박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에 와서 KDI에서 일할 연구원을 뽑기 위해 인터뷰를 하고 돌아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1971년 5월경이었다고 기억한다.

나는 정보를 준 사람에게 KD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물어 본 뒤 김만제 원장에게 편지를 썼다. 학위를 받은 대학과 연도, 전공 내용,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까지 소상하게 적은 자기소개와 기회가 주어지면 한국에 나가서 일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였다.

뜻밖에도 김만제 원장으로부터 곧바로 회신이 왔다. 급료도 많이 주고 숙소도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귀국 비용도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의외로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기회가 닿으면 귀국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나에게 너무 쉽게 그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다.

1971년 9월, 나는 미국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수석연구원으로 귀국했다. 9년 만에 돌아온 고국은 많이 변해 있었다. 그러나 미국 생활에 젖은 나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다른 박사들도 그랬을 것이다. 봉급을 많이 주고 숙소도 고급 주택으로 마련해 주어 부족함은 없었지만, 고국의 생활 분위기에 적응하고 동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전적으로 그런 이유에서만은 아니었겠지만 귀국한 지 2년 만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이규식 박사와 남우현 박사 역시 한국에서의 연구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케이스라고 나는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처음 1,2년이 고비였던 것 같다.

그러나 나머지 동료들은 모두 이를 잘 극복하며 고비를 넘겼고, 반포의 연구원 아파트로 이사하여 모여 살게 되면서 동료들 간의 우의와 정은 한층 두터워졌다. 모두가 같은 동의 아래 위 옆집에 사는 이웃사촌이었다.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둑을,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즐기며 통행금지 시간이 지난 밤 12시 이후까지 어울리는 일도 자주 있었다.

KDI 설립 1년 동안에 들어와서 가족처럼 어울렸던 12명의 수석연구원 중 1980년 말까지 박종기 박사와 주학중 박사만 남고 10명은 대학교수, 또는 다른 연구소의 책임자가 되어 KDI를 떠났다. 남은 두 사람 중 박종기 박사도 1983년 인하대학교 교수로 전직했다. 주학중 박사는 일찍이 연

세대학교 교수로 초빙된 일이 있었으나 사양하고 KDI에 계속 남아 있다가 병고로 타계하여 우리 모두의 가슴에 아쉬움을 남겼다.

주학중 박사가 연세대학교로 가지 않고 KDI에 남았을 때 우리는 그의 착실한 성품으로 보아 정년이 될 때까지 초지일관 KDI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했는데 안타깝게도 재직 중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박종기 박사도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한 뒤 작년에 작고하셨다.

세월의 빠름은 참으로 무정하다는 말은 거짓이 아닌 것 같다. 대부분 고학(苦學)으로 어렵게 공부하였지만 미국까지 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박사학위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KDI에서 나라의 경제발전을 돕고자 힘을 모았던 1970년대의 젊은 시절을 이제 먼 옛날의 추억으로 간직하는 나이가 되었으니 말이다.